

# 완도군, 전복 제품 개발...소비 촉진

## 건강한 치패 적정량 입식·가두리 1줄 비우기 운동 등 '박차'

완도군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전복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관련단체,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완도전복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문화로 수요조절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가격이 하락해 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활 전복 이용도가 여전히 높은 소비시장을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월초 냉동 전복 택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활 전복의 경우, 껍질을 벗길 때 손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먹고 난후 껍질 뒤처리가 불편해서 소비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과 가공업체는 껍질을 벗긴 살 전복을 먹기 쉽고 보관이 간편하도록 소포장 팩으로 나눠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하



완도군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전복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관련단체,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는 택배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활 전복보다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좀 더 보완하면 상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복 소비문화로 생산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 마지막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생산자들은 건강한 치패의 적정량 입식, 가두리 1줄 비우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통단계 축소 및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종합대책을 마련과 "군민부터 전복 2kg씩 소비하기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새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수출 및 유통협회에서도 전복 먹기 군민 운동 전개를 받기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 전복생산량을 전년 18,000톤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66%인 12,000톤이 완도군에서 생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 강진군, 친환경 농산물 인프라 구축

## 칠량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도정시설 등 5억원 지원

전남도가 주관한 올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에 강진군 칠량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이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 친환경 쌀 도정시설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칠량영농조합법인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사업계획에 대한 공개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군은 이번에 선정된 도비 2억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자부담 2억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도정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도정시설은 농가가 기존 원료별로 출하하던 방식에서 직접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 생산된 부산물을 퇴비 원료로 활용해 순환농업의 시스템을 갖추 수 있게 된다.

쌀로 가공 판매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와 연중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원료곡을 일

반창고에서 고온기에 장기간 보관 시 해충 등 품위저하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저온저장으로 연중 고품질 쌀의 신선도를 유지해 강진 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관내 친환경 벼의 계약재배 및 인증면적 확대가 증진 될 것으로 내다보며 내실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친환경농업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각종 기반시설을 착실히 구축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소득 향상이 가능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환경농업실천 참여로 유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유지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촉진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 영암군, 전남체전 대비 숙박·음식 업소 점검

## '청결 음식·복장·환경 캠페인' 홍보

영암군은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57회 전남체전을 맞이하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섰다.

영암군은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관내 한식업소 330개소와 숙박업소 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반은 위생팀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으로 구성되어 6개반 12명이 점검을 진행한다.

먼저, 12~30일까지 사전 점검 기간으로 한식업소 330개소와 숙박업소 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며, 4월 2~13일까지 시정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4월 16~22

일 점검 시에는 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복·위생모·위생마스크 착용, 식재료 보관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업소 내 보관, 가격표게시, 숙박시설에 대한 소독 여부, 화장실 청소상태, 건강진단증 검사 여부 및 업소 내·외 환경정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미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생업소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종사자 친절교육 및 음식점 3대 청결(깨끗한 음식·환경·복장)운동 캠페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제57회 전남체전에 대비해 형식적 지도 점검을 탈피하고 기본 안전 수칙 위주로 집중 점검하여 영암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 목포시,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 줄이기' 경진대회

목포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감량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신청받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4~10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상태 및 주민 홍보사항에 대한 현장평가와 전년도 대비 감량률에 대한 서면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성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6개소에 대해서는 총 420만원 상당의 납부필증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며, 이중 3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단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만 식재료 구입 및 조리하기', '소포장·깍끔포장·반가공 식재료 구입', '냉장고 정리정돈' 등을,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기',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목포=김덕희 기자



신안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의 자립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을 목표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8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을 펼쳤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강소농 역량강화 실천 기본교육

## 중소농 비전 설정·농업경제체 자립역량 강화 '도모'

신안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의 자립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을 목표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8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강소농 사업을 통해 중소농의 비전 설정과 농업경제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4차혁명에 따른 농업환경, 농업정책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소농을 주제로 농업인의 현실 인식과 실천 대응전략, 효과적인 농산물 명품

화 마케팅 활용 전략 등을 제시하여 강소농을 향하는 일선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소농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 등 농업위상 약화와 FTA 구제역, AI 등 외부 농업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시작했다.

한편 신안군은 201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63명의 강소농을 배출했다. /신안=김호 기자

# 진도군, 방치 관정 폐공 '청정 지하수' 유지

진도군이 지하수 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사용이 중단되어 방치된 지하수를 폐공 처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펼친다.

12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된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찾아 원상 복구한

다. 군은 관내에 방치되고 은닉된 모든 지하수를 찾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에 폐공신고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방치된 폐공 신고는 061-540-6208로 하면 된다. /진도=박재영 기자

#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 ENERGY 4.0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 추진 인천연료전지, 청송풍력, 고령풍력, 사남해상풍력, 삼랑진원수태양광
-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솔라,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